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10월17일

93 예수사랑 큰잔치 다음 주로

오늘은 전 교회학교 각 부서별 총동원 주일로

심령부흥회(11-14일) 통해 새로운 마음 다져

교구별 세부계획 작성, 전 교구원 긴밀 접촉

그동안 준비해온 예수사랑 큰잔치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전 교회가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고 태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24시간 연속기도를 실시하고, 교구별 전진대회를 가지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각 교구에서는 교구별 모임을 가지고 각 교구에서 협력할 사항들과 각 교구일꾼들이 감당할 일들을 분담하며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전도대상자와 태신자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지난 주에는 2만통이 넘었으며 개인당 100통이상 보낸 사람에게는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특별시상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교회학교는 오늘(10월10일), 전 교회학교가 각 부서별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열고 총동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회학교가 배가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 교사와 학생들이 일치하여 계획하고 진행하여 왔다. 이제 1년에 한번 하는 이런 총동원 전도행사를 통하여 전도

하는 교회로의 모습으로 정착시켜 나가 앞으로는 1년내내 각 개인이 전도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여 본다.

심령부흥회 내일 새벽부터

14일(목) 저녁까지, 새벽기도회와 저녁 부흥회

교회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또 다음 주일에 실시할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심령부흥회를 내일(11일) 새벽부터 14일(목) 저녁까지 실시한다.

가을마다 부흥회를 열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계기를 가져온 부흥회는 금년에는 특히 예수사랑 큰잔치를 한 주간 앞서서 실시하여 전 교인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예수사랑 큰잔치에 전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번 부흥회에 가능하면 태신자와 전도대상자를 부흥회에 참석시키고, 13일(수)에는 전교인이 저녁 부흥회(수요 II부 예배)에 참석할 것을 바라고 있다. 부흥회 마지막 날인 14일(목)에는 헌금시간이 있어 기도로 준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강사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대표, 수원침례교회 담임)로 새벽기도회와 저녁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다. 특별히 이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온 교회가 영적 각성과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흥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

토요일 결혼식 허락기로

교회는 그동안 성수주일 문제와 주일준비관계로 토요일 교회 내에서의 결혼식을 금해왔었는데 이를 허락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결혼식 장소로 사용되는 갈릴리홀은 오후 1시까지, 봉사관 사용시 오후 3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에는 식당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성도들은 이런 사항을 잘 알고 담당 교역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군전도회, 입대자 주소 파악, 군전도회에서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군입대한 자녀의 주소를 알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군입대한 자녀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유인물(주보, 주간충현 등)을 보내 주어 교회적인 관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원만한 군생활을 위한 상담창구 역할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김창인 원로목사

· 10월 11일 예수사랑 큰잔치 심령부흥회 축도(저녁)
· 10월 12일 수도노회 참석

당회장 신성종 목사

· 10월 11일 예수사랑 큰잔치 특별새벽기도회 인도, 저녁 심령부흥회 사회, 목회자 세미나 강의
· 10월 12일 수도노회 참석
· 10월 13일 심령부흥회 축도(저녁)
· 10월 15일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도할 것을 바라고 있다.

- 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기 위하여
- ②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 ③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 ④ 예수사랑 큰잔치의 성공을 위하여
- ⑤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하여
- ⑥ 전 교인의 참석을 위하여
- ⑦ 좋은 일기 주시기를 위하여

첫날 새벽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설교를 하고 첫날 저녁부흥회부터 강사 김장환 목사가 설교하며 부흥회를 인도한다. 김장환 목사는 저녁부흥회에서 사람이란(시 8:1-9), 생명이란(요일 5:10-13), 신앙이란(마 21:1-11), 제자란(마 7:15-23) 제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로대학 야외학습

경로대학에서는 오는 10월 21일 야외학습을 대전 엑스포로 정하고 준비하며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300명을 모집하는데 10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참가대상은 60세 이상이면 된다. 당일 오전 7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오후 8시에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경로대학은 10월 14일(목) 오후 1시에 갈릴리홀에서 복음송 가수인 전용대 전도사를 강사로 특강을 가질 계획이다.

'93 장애인 복음화 대회

민박 및 자원봉사자 모집

오는 10월 19~21일, 우리 교회당에서 열릴 '93 장애인 복음화 대회를 위한 민박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장애인 복음화대회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참석인원이 1,000명 정도(장애인 500명, 보호자 500명)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회본부에서는 전국에서 오는 이들을 위한 민박회장과 대회기간 중 봉사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락은 밀알 선교단 사무실로 하면 된다. (전화 568-3203~4, 552-8200(교한 423))

'93 예수사랑큰잔치

지금 당신을 초대합니다.
충현교회로 오십시오!

일시/1993.10.17 오전7시,9시,11시
오후1시,3시,5시,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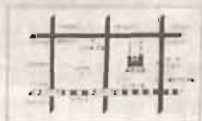
장소/충현교회당
강사/



김창인 목사



신성종 목사



이 시간에는 구원의 오묘한 섭리를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19장 30절의 말씀과 20장 16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19장 30절이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서론이며 또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19장 27절에 있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는 말씀과 연결을 시킬 때 비로소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는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직업도, 배도, 그물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좇았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무엇입니까?' 라고 굉장히 자만심에 가득찬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0절에 있는 말씀이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1. 예수님의 경고(마 19:30)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19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의 표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공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굉장한 것이 기다릴 것이 아닙니까?' 하는 뜻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많으니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언제든지 먼저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항상 먼저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성공 여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서열과 천국에서의 서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1~16)

본문에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구합니다. 제 삼시에 또 나가서 품꾼을 구합니다. 제 삼시는 지금 우리 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나가보았습니다. 제 육시, 정오입니다. 점심때 나갔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농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구시, 즉 오후 3시에도 마침내 제 11시 즉 해지기 한 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도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할 때 얼마를 주겠다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그 날 일을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줍니다. 그러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두서너 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역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과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을 찾지 못해서 서성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까지 다 우리는 장터에서 서성대면서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지 못하고 서성대고 있었던 우리

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이 어린 시절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수를 더 받으려고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헌강단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 19:30 ~ 20:16)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에게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있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9장 30절의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말씀은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것을 가지고 내뒀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택하므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들이 있는데 먼저 온 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바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 노력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이방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1900년 동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100년 전에 복음이 이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먼저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된 자가 많으니라는 그 말씀 그대로 늦게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좀더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을 한 사람들이고, 늦게 온 사람들은 중간에 전도받고 늦게 예수를 믿게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찍 들어왔거나 중간에 왔거나, 늦게 믿었거나 구원받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같이 천국에 똑같이 갑니다. 다만 다른 것은 저들의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로 제자들에게, 늦게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일찍 믿었다고 해서 이방인들 멸시하지 말아라 늦게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도 앞설 자가 많으리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 주인의 지극한 사랑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어떠했습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릴 때나 젊을 때

나 장년의 때나 늙었을 때나 할 것 없이 부르셨습니다. 넷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15절).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늦게 들어온 자를 앞세우고 싶으시면 앞세우십시오. 마지막 다섯째 교훈으로 성도의 봉사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이 품꾼은 장터에서 서성대고 있는 자기에게 주인이 그 사랑으로 일자리를 주어서 일하게 되었다는 그 귀한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감사대신 불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나 우리는 나는 안알아준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땅자를 시키했던 형님처럼 형제들의 축복을 시기하며 텃세를 부리지 않는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그저 거기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집사가 반드시 장로 밑에 있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서열과 천국에서의 서열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목사가 천국에서는 집사를 받을 셋거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에는 시대적인,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기 보다는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해야합니다. 내게 은혜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앞에 봉사를 해야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족한 줄로 알고 절대 불평하면 안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잘해서 잘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과연 나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며 주님앞에 봉사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큰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중요성

길

인간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그 운명은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만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부부의 만남이다. 이 만남에 따라 행복과 성공이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을 순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종교와의 만남이다. 좀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세계를 여행해보면 종교에 따라 사는 형편이 너무도 다른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종교가 개인뿐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결정할 때에는 아주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영혼이 이것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글 / 신성중 목사

예수사랑 큰잔치,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남은 6일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해왔지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실망하다가도 마지막이 잘 되면 그 만큼 기쁨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열심을 다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정성껏 보내왔습니다. 전도지를 배포했습니다. 포스터도 부착하였습니다. 예수사랑 홍보 신문도 배포했습니다. 태신자 카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선물도 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므로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만큼 잘 되지 않음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일했던 일꾼의 심정으로 이제 남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맨 나중에 열립니다. 남은 6일 동안 '이젠 틀렸다'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복음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 성공적 전도를 위한 7일 작전

- 주 일 - 태신자(초청대상자)의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 월요일 - 태신자에게 전화로 통보, 초청하십시오. 초청장을 보내십시오.



〈초청장〉

- 화요일 - 이미 나눠 드린 등록카드에 태신자 이름 및 주소를 기록하십시오.
- 수요일 - 태신자를 방문하십시오. 당일에 만날 장소를 약속하십시오.
- 목요일 - 태신자를 방문하십시오. 예수사랑 홍보용 전화 카드를 선물로 미리 준비하십시오.
- 금요일 - 기도, 기도, 기도를 하십시오.
- 토요일 - 꼭 한 번만이라도 오라고 전화로 부탁하십시오.
- 주 일 - 그 집을 찾아가서 모시고 오십시오.

• 당일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내가 주력교구(표2)로 되어 있는 시간에 참석하도록 하되 태신자의 형편에 따르십시오.
2. 만남의 장소(표3)에서 태신자를 만납니다. 교구별 만남의 장소를 미리 확인해 놓으십시오.
3. 만남의 장소에 준비된 등록카드(표1)에 초청자와 태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3장 중 맨 위의 용지(환영합니다)는 들어서 제출하시고 나머지 두 장은 태신자 자신이 보관합니다.
4. 환영 스티커를 붙입니다.
5.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남의 장소를 거치지 않은 분들은 본당 현관에 있는 안내원을 통해 카드를 기록합니다.

6. 설교 후에 결단의 시간에 믿기로 결심하는 자는 보관하고 있던 두 장의 용지를 안내위원에게 제출합니다.

7.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기념선물(떡)을 받게 됩니다.

8. 다음 주일에 다시 교회에 올 것을 약속합니다.

• 그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 결단의 시간에 제출된 등록지에 따라 교구에서 심방을 합니다.
2. 심방이 끝나면 곧 교적 번호가 부여됩니다.
3. 등록된 사람들은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4. 기존의 구역에 편성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 등록카드 사용방법

1. 반복해서 기록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만 기록하도록 3중지를 만들었습니다.
2. 맨 뒷 부분은 교회 보관용이므로 바로 뜯어서 제출하시고 나머지 두 장은 태신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믿기

〈표1〉 〈등록카드〉

환영합니다			
초대할 무서운분		초대할 선분	
성명	성명 남·여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 (지역)	전화	전화	전화

이 카드를 가지고 10월 17일(일) 저녁 7시 30분 포도원 예배당에 오십시오.

결심자 카드			
초대할 무서운분		초대할 선분	
성명	성명 남·여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 (지역)	전화	전화	전화

이 카드를 가지고 10월 17일(일) 저녁 7시 30분 포도원 예배당에 오십시오.

결심자 카드			
초대할 무서운분		초대할 선분	
성명	성명 남·여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 (지역)	전화	전화	전화

이 카드를 가지고 10월 17일(일) 저녁 7시 30분 포도원 예배당에 오십시오.

▲ 당일에 사용할 등록카드, 환영합니다, 결심자 카드①, 결심자카드② 총 3장으로 되어 있어 첫 장〈환영합니다〉은 기재사항을 적어서 제출하고 나머지 두장은 태신자 자신이 보관한다.

로 결심할 경우 안내원에게 제출합니다.

3. 제출된 결심카드는 교구와 새가족부로 전달됩니다.

4. 미리 기록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 원활한 주차 시설을 위하여

1. 교회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2. 같은 방향은 같이 타고 오셔서 주차장이 비좁지 않도록 합니다.

3. 하루 종일 봉사하시는 분은 자가용을 차제하시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십시오.

3. 제직 및 직분자는 영동전환국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침례교단
지역사회에 봉사하시
우리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복을 전합니다

예수사랑

나의 믿어 의심치 않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사람을 사랑하며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1993년 10월 17일

10월17일 참된 안식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성의 장소 참 안식의 장소로 초대합니다
특별한 찬양은 오직
영광의 찬양과 찬양의 찬양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통해 영혼은
"죽고하고 부활을 얻은 자들이 함께 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의 장소 참 안식의 장소로
초대합니다.
10월 17일, 어떠한 시간에도 오십시오
이제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고 그 시간에
찬양 찬양의 삶이 이루어 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안식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10월 17일, 여의도를 우리 중원교회에서
오기 바랍니다

▲ 이번 한주간은 중요한 기간이다. 태신자와 전도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전화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며 보내야 한다. 또한 이런 홍보용 신문을 통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알리는 일도 이번 주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사진은 홍보용으로 제작된 〈예수사랑〉신문.

93 예수사랑큰잔치를 맞으며

사랑 전하는 집배원

김 운 섭 (집사, 제15교구)

해 뜰때부터 해 질때까지
사랑을 값없이 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집배원
포도 송이송이 땀방울 뿜년 이루는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지상명령 수행하기 위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향기 날리고
한 통 한 통 사랑을 띄우는 구원의 선물
동서남북 뛰어 다니며 사랑을 전하는 나는 집배원
삼십배 육십배 백배 하늘나라 채우소서
'92 잔치보다 '93잔치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눈 있어도 하나님을 못 보는 자
입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 못하는 자
귀 있어도 생명의 말씀 못 듣는 자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고 예수 믿으세요
전하세 참여하세 예수사랑 큰잔치

세상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하나님 사랑안에 높고 낮은 빈부없네
저 흠어져 죽어가는 생명들을 모아서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
주님 배푼 천국잔치 예수사랑이라네

우리 사랑 모아모아 사랑 전하는 집배원
천국잔치 펼쳐지는 시월 십칠일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와 변하는 마음
햇빛같은 얼굴 사랑의 햇빛되어
영원히 영원히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표 2> <예배별 주력교구 배정>

예배명	예배시간	주력참석교구	비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새벽기도회
1부	오전 7시	1~23교구 일꾼	일꾼헌신예배
2부	오전 9시	1, 5, 6, 13교구, 교회학교	
3부	오전 11시	2, 7, 20, 23교구	
4부	오후 1시	3, 8, 9, 21교구	
5부	오후 3시	4, 10, 11, 12, 22교구	
6부	오후 5시	14, 15, 16, 17, 18, 19교구	
7부	오후 7시	1~23교구 전체	감사찬양예배

생명을 구하는 값진 체험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헌혈 : 10월 24일, 본당앞 광장에서

교회는 사랑실천 운동본부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자 요청해 옵니다.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 혈액에 대하여

우리 몸 속에는 체중의 약 8%에 상당하는 혈액이 돌고 있는데 신비하게도 이 혈액의 10%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이 다. 그리고 인체의 혈관속에는 전체 혈액량의 절반 밖에 없고 나머지는 혈관 밖 조직에 여분으로 퍼져 있다가 출혈이 생기면 즉각 혈관속으로 모여들어 불과 1,2시간이면 완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 약간의 출혈이 있어도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

- 일시 : 1993. 10. 24(주일)
오전 8:00 - 오후 3:00
- 장소 : 본당 앞 광장
- 대상 : 전교인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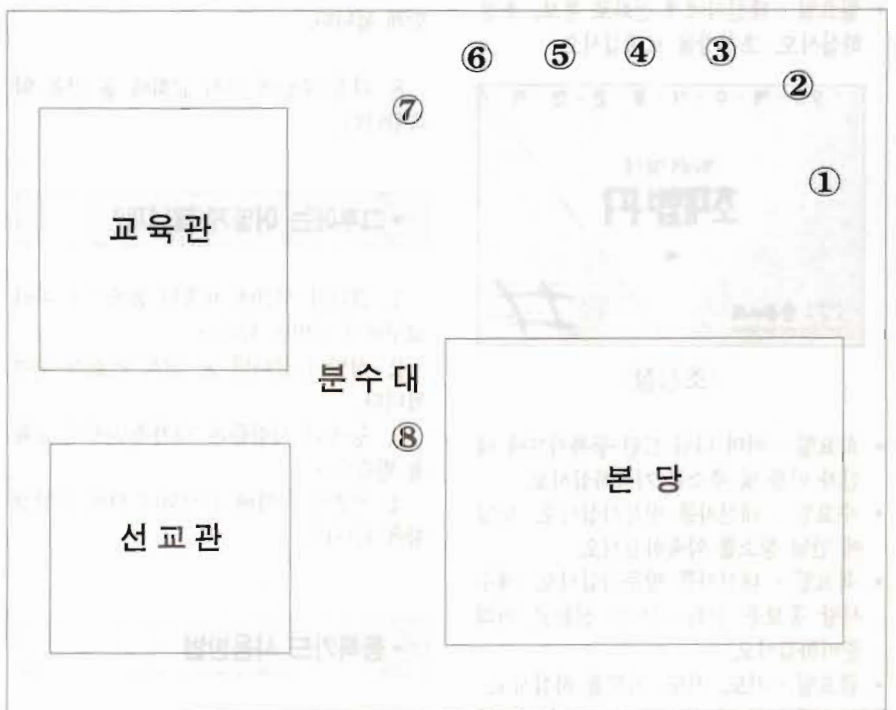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0월 11일(월) 심령부흥회 축도(저녁),
12일(화) 수도노회 참석
· 신성중 목사님 :
10월 11일(월) 예수사랑 큰잔치 특별새벽기도회 인도, 저녁 심령부흥회 사회, 목회자 세미나 강의,
12일(화) 수도노회 참석,
13일(수) 심령부흥회 축도,
15일(금)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2.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떠난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11일(월)부터 시작되는 심령부흥회에 세우신 강사 김창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힘써 참석하여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4.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힘써 기도하며 믿지 않는 분들을 적극 권면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표 3>

<만남의 장소 배치도>



- ① 1, 8, 15교구 ② 2, 9, 16교구 ③ 3, 10, 17, 22교구
- ④ 4, 13, 18, 23교구 ⑤ 5, 12, 19교구 ⑥ 6, 11, 20교구
- ⑦ 7, 14, 21교구 ⑧ 교회학교(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

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은 4,800cc 정도의 혈액이 있는 셈인데 이중 320 - 400cc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인체에서는 매일 50cc 정도의 혈액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헌혈한 사람이 헌혈대를 떠나기도 전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남자는 체중이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으로 정상혈압(최고 100 - 200mmHg, 최저 60 - 100mmHg)인 16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헌혈자에게 주는 혜택

1) 혈액의 예치, 헌혈증서 발급
모든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사람도 수혈이 필요할 때 혈액형에 관계없이 헌혈량 만큼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무료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2) 건강 진단의 기회

체중, 혈압, 혈액형, 혈액비중검사는 헌혈전에 실시하고 헌혈후 Rh 음성혈액형, B형 간염항원, C형 간염항체검사, 간기능검사(S-GPT)를 일차적으로 실시하여 B형, C형 간염검사가 양성이거나 S-GPT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S-GOT·총단백·알부민·콜레스테롤·요소질소 A/G비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준다.